



보도시점 2024. 4. 26.(금) 배포즉시 배포 2024. 4. 26.(금)

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들에서 흑자 기록

자동차 무역수지(+565억불) 흑자 규모가 반도체(+455억불)를 상회

<보도내용>

4.25.(목) 중앙일보 「한, 반도체 제외하면 무역수지 ‘적자’ 경고등」에서는 “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, 반도체 쏠림에 따른 ‘착시 현상’”, “최근 1년간(2023년 4월~2024년 3월)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>

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'23.4월부터 '24.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, 동 기간 중 원유 △856억불, 가스 △334억불, 석탄 △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△1,377억불(수입 1,380억불) 적자입니다.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,592억불 흑자입니다.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,136억불 흑자입니다.

* 무역수지(억불) : (원유) △856.3, (가스) △333.7, (석탄) △186.5, (반도체) +455

특히,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'23.4월부터 '24.3월까지 총 2,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.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, 반도체는 455억불, 석유화학 336억불, 석유제품 290억불, 일반기계 231억불,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【 '23.4월~'24.3월 기준 주요 흑자품목 】

(단위: 억불)

자동차	반도체	석유 화학	석유 제품	일반 기계	선박	자동차 부품	디스플레이	철강	무선 통신
+565	+455	+336	+290	+231	+216	+162	+152	+128	+28

/끝/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 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여수향 (044-203-404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